

**특집 : 제2회 계기 강습회 원고초록**

## 사료 동향과 양계 경기

유 윤 수

(한국사료협회 부회장)

### 1. 서 론

한국에 있어서 배합사료는 국내 양계업의 변창으로 매년 생산량이 많아져 왔다. 1971년도의 배합사료 생산량이 70만톤이었고 1972년도 즉 올해의 생량은 90만톤을 초과할 것이다며 1973년에는 100만톤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합사료 생산량 중에서 90% 이상이 양계사료가 차지한다. 그러므로 현재에 있어서 한국의 배합사료라고 하면 바로 양계사료를 가르킨다고 해도 과언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외국은 그러하지 않다. 많은 양이 낙농사료가 차지하고 양계사료는 매우 적은 비율로 생산되고 있다. 금년도에 생산되는 국내 배합사료 90만톤에 소요되는 외화는 약 4,000만 달라로서 단일 품목의 수입으로 외화소비 순위를 따지면 국내에서 약 25번째의 순위가 된다. 바로 인근 국가인 일본에서는 두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 2. 원료동향

옥수수원료는 현재 약 12만톤이 부두, 야적, 혹은 각 사료회사의 창고에 보유되어 있으며 또 8월초에 84,000톤이 선적되어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로서 1972년도 말까지 국내 배합사료용 옥수수원료가 확보되는 셈이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렇게 몇개월분의 원료를 한꺼번에 확보하는 이유는 넉넉치 못한 외화사정상 10년 거치 20년 상환의 480장기차관으로 처리하였으며 이것은 미국의 72년도 예산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회계년도는 6월까지이므로 6월말까지 모두 선적하게끔 된 것이다.

어분은 전 세계 생산량의 65%를 폐루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어획황금기인 3.4.5월에 이상해류가 흘러 고기를 거의 잡지 못하였고 6월부터 8월까지의 3개월간은 금어기로 되어 있어 어분파동이 일어났다. 국내에 소요되는 어분이 약 3만~3만 5천톤정도인데 톤당 140~150달라이던 가격이 165~170달라로서도 살수 없는 상태이다. 세계 각처에서 어분구매 요청이 비등하자 폐루에서는 금어기인 6.7.8월중 6월과 7월은 이를 해제하고 고기를 잡게하고 있지만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한국에 들여올 수 있는 어분은 9월에 조업하여 10월에 선적하게 되며 11월이나 12월경에 국내 사료공장에서 사용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므로 일본, 파키스탄, 폐루, 남아프리카의 양고리 등지에서 운임 40~45달라를 포함하여 185달라정도의 가격이던 어분을 톤당 210~220달라 심지어는 229달라의 가격으로 얼마간 구입 확보하고 있으며 배합사료의 3%정도 첨가량으로서 9월까지의 국내 사용분량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어분파동이 있으니까 뒤따라서 대두박파동도 일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각 사료공장에 5% 정도로 대두박을 사용하라고 하지만 어떤 공장에서는 심지어 17%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방침대로 국내 사료공장에서 5%씩의 대두박을 사용한다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양으로 9월까지의 원료사정이 되는 것이다.

또한 강류사료도 가격이 35~40%선으로 등극하였다. 탈지강은 시세조류에 따라 쌀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자 쌀을 짜지 아니하므로 품귀상태가 되었으나 밀기울은 그 반대 추세로 유사이래 최고의 생산량을 내고 있다. 그러므로 밀기울의

가격은 종전의 고시가격 500원을 무시하고 700원까지 판매하던 것이 지금은 36kg당 400원선(공장)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배합사료에 그다지 많이 사용하는 편이 못되며 또한 제분업자들이 단합하여 기회만 있으면 500원선으로 높이려 하고 있다. 이렇듯 사료원료의 동향은 매우 순탄치 못한 상황하에 놓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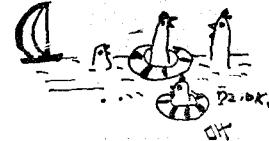
### 3. 정책 및 현황

정부에서는 지금 각 사료공장의 모든 시설을 완전하게 갖추라고 지시하고 있다. 물론 타당성 있는 지시이며 이려해야 될 줄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상황하에 더욱 사료가격의 인상을 부채질하는 요소가 되리라 생각된다. 시설비에 대한 투자가 자꾸 많아질 때 그에 따라 생산제품의 원가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료겸 사제도는 현재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생산중단 3회 위반시 취소로 되어 있는데 1회 위반시에 즉각 취소한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 생각으로는 시정 후 재 사용토록 하는 것이 전설적이라고 생각된다.

당국에서는 국내산원료 예를 들면 강원도산 옥수수 1만톤 등을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국내 사료공장현황을 살펴보면 10개 대공장에서 60만 톤을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약 30만톤을 군소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국내산 원료의 사용은 가격에서나 구매체도상으로 많은 난점을 가지고 있어 매우 힘들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미국산 옥수수는 톤당 58~61\$이며 앞으로 63\$정도로 인상될 것이나 국내산 옥수수는 톤당 120\$정도로 높은 차이를 지니고 있다. 또한 사료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에 원료를 확보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문제로 사료원료의 관세사항이 있다. 국내 곡류가격과 비교 검토해서 비관세에서 관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료 가격인상의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 틀림없다.

외국의 사료원료사정을 살펴보면 카나다에서는 대맥이나 채종박을 많이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왜 대맥을 사용하느냐고 반문하고 있지만 그들은 시험장에서도 시험중에 있는 것이다. 카나



다에서 채종박의 사용비율이 부로일러사료에 15%이상, 산란계사료에 5%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콩기름이 싸고 채종씨유가 비싸지만 카나다는 배추씨가 잘되므로 콩기름이 오히려 비싸다. 이 사실에서 수입품은 비싸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사료에 있어서의 외국에서 생산되는 양계사료 비중이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축산에 있어서 양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외국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닭고기, 돼지고기가 비싸고 소고기, 양고기가 싸다. 그러나 한국은 그 반대현상인 것이다. 유우털의 스위스 역시 소고기, 돼지고기가 싸고 계란이 비싸다(개당 20원 이상) 미국의 축산담당관은 우리나라에 와서 왜 소는 기르지 않고 양계만 하느냐? 소를 기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정에 비추어진 이 말은 우리에게 적합치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들은 축우사료로서 완전 농후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의 양곡실정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일본의 계란시세를 보면 달러환율이 300:1인 “엔”화로 개당 평균 10원이며, 우리나라의 달러환율이 400:1인 “월”화로 개당 평균 10원이다. 이러한 환율관계로 인하여 옥수수 마찬가지로 일본은 톤당 18,000원에 하역비 포함하여 19,000원이고 우리는 톤당 24,000원에 하역비를 포함하면, 25,000원~27,000원이 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밀기울은 일본이 톤당 18,000원에 수입하고 우리나라에는 12,000~13,000원에 도입하고 있다. 국내



양계가의 인식에 옥수수, 대두박, 어분이 많으면 좋은 사료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밀기울이 24~25% 사용되면 양계업자들은 쓰지 아니한다. 현재 국내사료의 밀기울 사용비율은 10% 선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옥수수가격보다 쌀 수수를 많이 사용하여 옥수수 : 수수의 사용비율이 1:1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공의 수상 주운태가 일본에 대해 축산물의 가격과 양을 원하는 대로 정하여 가져가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돼지고기 90kg 생산에 50달러의 생산비가 소요되는 우리나라정에 비하여 중공은 25달러밖에 소비되지 않는다. 그들도 NRC 사양표준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사료기준을 사용하여 농후사료 25%, 나머지는 조사료로 생각되어지는 "발효사료"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 4. 결 론

지금까지 논의된 일반양계경기, 원료동향, 정책 및 앞으로의 추세 등을 종합해 볼 때 두 가지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좋지 못한 상황을 시정할려면 고식적으로 다루어질 문제와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우리를 나름대로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다른 수입물자와는 달리 사료의 수입은 먹어 없애기 위하여 차관을 통하여 수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질의 수입은 어디에 가서든지 떳떳치 못한 내용의 수입이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설정이므로 근본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사양표준이 따로 만들어져 사용되는 등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 양계 생산자를 위하여 "난가상승"을 위한 제반문제가 다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가는 수요공급의 원칙에서 결정된다는 상업원칙에 의한다면 어차피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난가상승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우리나라를대로의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 SF-벤토나이트

벤토나이트는 일반사료에 3%투여서 장내에서의 소화시간을 연장하여 내장의 길이가 짧은닭의 소화율을 높여 사료효율을 향상시킵니다. 산란계의 계분의 수분함량을 감소, 열변을 방지합니다.

SF® 과학사료공사 TEL.28-5537  
공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봉동 당우지구 22-4

#### \* 양계가의 영원한 친구 \*

### 월 간 양 계

1년분: 1,500원

반": 800"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소액환을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구 초동 18~11

한국가금협회 26-0321, 4692